

내신 기출

문학 비상 (하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문학 비상-하편>>

◆차례◆

3. 한국 문학의 성격

(3)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춘향전-----1쪽 (14문제)

4. 한국 문학의 역사

(1) 상고 시대~고려 시대의 문학

*주몽 신화-----11쪽 (15문제)

*제망매가-----20쪽 (25문제)

*동동-----32쪽 (34문제)

(2) 조선 시대의 문학

*이생규장전-----47쪽 (34문제)

*시조 네 편-----69쪽 (46문제)

*속미인곡-----87쪽 (55문제)

*임경업전-----111쪽 (30문제)

(3) 개화기~ 일제 강점기의 문학

*산태지-----131쪽 (16문제)

*쉽게 씌어진 시-----145쪽 (60문제)

*태평천하-----169쪽 (26문제)

(4) 광복 이후의 문학

*광장-----185쪽 (15문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195쪽 (17문제)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202쪽 (6문제)

5. 문학에 관한 태도

(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흐르는 북-----207쪽 (20문제)

▶정답-----220쪽

▶해설-----233쪽

(버전: 2020.06.25.)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3-(3) 춘향전

◆핵심 정리

갈래	판소리계 소설, 영정 소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배경	조선 후기, 전라도 남원	제재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순한 사랑과 유교적 정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시대의 신분적 한계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소재를 통해 드러남. 편지자적 논평, 확장적 문체 등 판소리의 특징과 양반층과 서민층의 언어가 어우러져 나타남. 		

◆전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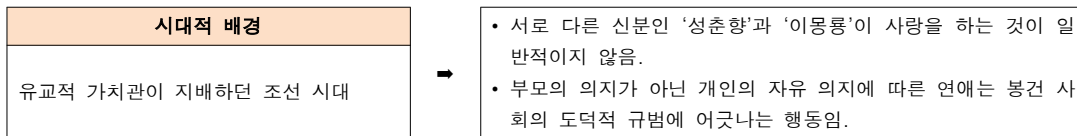
발단	'성춘향'의 자태에 첫눈에 반한 '이몽룡'은 '성춘향'과 백년가약을 맺으나,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됨.
전개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는 '성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성춘향'은 옥에 갇힘.
위기	어사가 되어 남원에 돌아온 '이몽룡'은 '성춘향'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걸인의 행색을 하고 '성춘향'을 만남.
절정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찾아간 '이몽룡'은 암행어사로 출도하고, '변학도'는 파면을 당함.
결말	옥에서 풀려난 '성춘향'은 '이몽룡'을 따라 서울로 가고, 두 사람은 백년해로함.

※ 교과서 수록 내용은 '발단' 부분임.

1. 등장인물의 특징

'성춘향'	'이몽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로, 퇴기 '월매'의 딸임.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할 정도로 당돌하지만, '이몽룡'과의 만남에서는 단아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임. 훗날 '변학도'가 수청을 요구하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옥살이를 할 정도로 대담하고 의지가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로, 남원 부사의 아들임. '성춘향'에게 반하여 거리낌 없이 '방자'를 시켜 '성춘향'을 부르고, '성춘향'을 보자마자 혼인을 이야기하는 등 철이 없는 모습을 보임. 훗날 어사가 되었으나 신분을 감춘 채 '성춘향'을 만나러 온 모습이 다소 능청스러우면서도, 의리가 있음.

2.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 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음소서.” “세상인심 고약하니 그만 놓고 가야겠소.”

3-(3) 춘향전

3. 작품의 주제 의식

표면적 주제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여성의 굳은 정절
이면적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적 한계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이루는 부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부정한 관리에 대한 저항('성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듣지 않는 부분)



민중들은 '성춘향'의 신분 상승과 부패한 관리에 대한 응징으로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

4. 갈래상의 특징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소설로 정착된 작품임.
----------------	--------------------------



-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등장인물에 대해 논평함.
- 구어와 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평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섞인 이원적인 문체로 서술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광한루에서 그네를 타는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몽룡은 자신이 부리는 방자에게 성춘향을 데려오라고 시킨다. 방자는 성춘향에게 다가가 이몽룡의 뜻을 전한다.

춘향이 대답하되,

[A]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 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 별수 없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다. 말인즉 옳도다.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방자 그 전갈을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지니, 그 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 들어가니, /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여염 처자 불러 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神通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춘향이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로 건너갈 제,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의 씨암탉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월(越)나라 서시(西施)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늘흐늘 건너온다. 도련님 난간에 절반만 비껴서서 그옥이 바라보니 춘향이 건너 오는데 광한루 가까이 온지라. 도련님 좋아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설월(雪月)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연지를 품은 듯, 자줏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통인 불러 말한다. / “앉으라고 일러라.”

춘향이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것 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재계하고 앉은 제비가 사랑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佳人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이때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 천하의 호걸(豪傑)이요 세상의 기이한 남자라. 이마가 높았으니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을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다. 호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모아 단정히 앉을 뿐이로다. 이 도령 하는 말이,

“옛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했으니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요?”

“성은 성(成)가웁고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이 도령 거동 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연세 들어보니 나와 동갑인 이팔이라. 성씨를 들어 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일시 분명하다. 혼인하여 좋은 연분 만들어 평생 같이 즐겨 보자. 너의 부모 모두 살아 계시냐?” / “편모슬하로소이다.”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올해 육십 세를 맞은 나의 모친이 무남독녀라. 나 하나요.”

“너도 귀한 딸이로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 보자.”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여 고운 음성으로 여쭙오되,

[B]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이 도령 하는 말이,

“네 말을 들어 보니 어찌 아니 기특하라.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금석 같은 맹세하리라. 네 집이 어드메냐?”

춘향이 여쭙오되, / “방자 불러 물으소서.”

이 도령 허허 웃고,

“내 너더러 묻는 일이 허황하다. 방자야!” / “예.”

“춘향의 집을 네 일러라.”

방자 손을 던지시 들어 가리키는데,

“저기 저 건너 동산은 울울하고, 물고기 뛰노는 푸르고 푸른 연못 가운데 신비한 화초가 무성하고, 나무마다 앓은 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바위 위 굽은 솔에 맑은 바람이 건듯 부니 높은 용이 서려 있는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문 앞의 버들,
 [C] 들쭉나무, 측백나무, 전나무며 그 가운데 행자목은 음양(陰陽)을 좇아 마주 서고, 오동나무, 대추나무, 깊은 산중 물푸레나무, 포도, 다래, 덩굴나무 넉출 휘휘친친 담겨 담장 밖에 우뚝 솟았는데, 소나무 정자가 대나무 숲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게 춘향의 집일려라.”

도련님 이른 말이, / “집이 정결하고 송죽(松竹)이 울창하니 여자의 정절을 가히 알리리다.”

춘향이 일어나며 부끄러이 여쭙오되,

“세상인심 고약하니 그만 놀고 가야겠소.”

도련님 그 말을 듣고, / “기특하다. 그럴듯한 일이로다. 오늘 밤 퇴령 후에 너의 집에 갈 것이니 괘시나 부디 마라.”

<뒷부분 줄거리> 그날 밤으로 성춘향의 집을 찾아온 이몽룡은 성춘향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 가던 어느 날, 이몽룡의 아버지 이 부사가 승진하여 한양으로 부임지를 옮기게 되고, 이몽룡은 성춘향에게 후일을 약속하고 떠난다. 한편,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또인 변학도가 성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성춘향은 옥에 갇히게 된다. 한양으로 간 이몽룡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고, 남원으로 내려와 변 사또를 벌하고 성춘향을 구한다.

- 작자 미상, 「춘향전」

광남고등학교 (서울)

1. <보기>에서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나. 서민의 신분 상승 욕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 자유연애가 어려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 ③ 나, 라 ④ 가, 나, 다
- ⑤ 가, 다, 라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광남고등학교 (서울)

2. 위 글의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② [B] : 합당한 근거를 들며 몽룡의 부름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다.
- ③ [B] : 옛글을 인용하여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 : 자신과 몽룡의 신분 차이를 제시하며 둘의 사랑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걱정하고 있다.
- ⑤ [C] : 열거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며 춘향의 집 주변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불러 건너갈 때 맵시 있는 방자 녀석, 서왕모가 요지연에 편지 전하던 파랑새같이 이리저리 건너가서,

“여봐라, 이 애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라,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래느냐.”

“이 얘야, 말 마라. 일이 났다.”

“일이라니 무슨 일?”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한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명을 내렸다.”

춘향이 화를 내어,

“네가 미친 자식이로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나.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삼씨 까먹듯 빨리 하였나 보다.”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네가 그르니 내가 그르나. 너 그 큰 내력을 들어 보아라. 계집아이 행실에 그네를 타려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매고 타는 게 도리에 당연함이라. 광한루 멀지 않고 또한 지금은 녹음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좋은 봄이라. 향기로운 풀은 푸르고, 앞 시냇가 버들은 초록색 휘장을 들렀고, 뒤 시냇가 버들은 연두색 휘장

을 둘러,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평퍼져 흐늘흐늘 춤을 춘다. 이 같은 광한루 경치 구경하는데, 그네를 매고 네가 뛰어 외씨 같은 두 발길로 흰 구름 사이에서 노닐 적에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흰 속옷 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같은 네 살결이 흰 구름 사이에 희뚝희뚝한다. 도련님이 이를 보시고 너를 부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잔말 말고 건너가자.”

(나)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뻐이라. 다 큰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탕을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내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 별 수 없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즉 옳도다.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방자 그 전갈을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여염 처자 불러 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다)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 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춘향이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로 건너갈 제,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 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의 씨암탉 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월(越)나라 서시(西施)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늘흐늘 건너온다. 도련님 난간에 절만만 비켜서서 그옥이 바라보니 춘향이 건너오는데 광한루 가까이 온지라. 도련님 좋아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 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설월(雪月)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연지를 품은 듯, 자줏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운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있거늘, 통인 불러 말한다.

(라) “앉으라고 일러라.”

춘향의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갓 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재계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 가인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이때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 천하의 호걸(豪傑)이요 세상의 기이한 남자라. ㉣이미가 높았으니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을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라. 호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모아 단정히 앉을 뿐이로다. 이 도령 하는 말이,

“옛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했으니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뇨?”

“성은 성(成)가웁고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이 도령 거동 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연세 들어보니 나와 동갑인 이팔이라. 성씨를 들어 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일시 분명하다. 혼인하여 좋은 연분 만들어 평생 같이 즐겨 보자. 너의 부모 모두 살아 계시냐?”

“편모슬하로소이다.”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올해 육십 세를 맞은 나의 모친이 무남독녀라. 나 하나요.”

“너도 귀한 딸이로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 보자.”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여 고운 음성으로 여쭙오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이 도령 하는 말이,

“네 말을 들어 보니 어찌 아니 기특하랴.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금석 같은 맹세하리라. 네 집이 어디메냐?”

<중략>

춘향이 일어나며 부끄러이 여쭙오되,

“㉥세상인심 고약하니 그만 놀고 가야겠소.”

도련님 그 말을 듣고,

“기특하다. 그럴듯한 일이로다. 오늘 밤 퇴령 후에 너의 집에 갈 것이니 괘시나 부디 마라.”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근원설화 <옥중화>를 바탕으로 불린 판소리가 소설로 창작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 ㄴ. 전형적인 남녀 주인공의 묘사와 전기적인 요소가 개입된 고전소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 ㄷ.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ㄹ. 평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섞인 이원적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 ㅁ.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적과 심리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장면의 전환이 매우 빠르다.
- ㅂ.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등장인물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ㄹ, ㅂ ② ㄱ, ㄹ, ㅂ
-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ㄷ, ㅂ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 : 정절과 지조를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태도에 남자 주인공이 흠족해함을 알 수 있다.
- ② ㉡ :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신분 차이를 인식하는 동시에,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남자 주인공의 '입신양명'을 암시하며,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
- ④ ㉣ : 여자 주인공이 마음에 걸려하는 부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 ⑤ ㉤ : 남녀 간 교제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당시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5.

- (1) ㉠와 연관된 한자성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에 서 찾아 다섯 어절로 쓰고,
- (2)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콩쥐 팥쥐」는 계모에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 신분이 높은 남성을 만나 행복해진다는 서양의 「신데렐라」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독일의 「재투성이 소녀」, 프랑스의 「상드리용」, 중국의 「섭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콩쥐 팥쥐」와 유사한 이야기가 세계 여러 나라 문학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주제나 표현 방식 면에서 세계 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이 갖는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된다.

또한 한국 문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쌓아 오면서 나름의 고유한 특수성을 형성해 왔다. 예를 들어, '남북 분단'처럼 우리나라가 겪었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분단 문학'과 같은 한국 문학만의 고유한 영역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처럼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관계는 물론, 세계 문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나름의 특수성을 지니며 발전해 왔음을 알고, 한국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조건>

-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
- '~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살펴볼 수 있고, ~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다.'의 형식으로 쓸 것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남편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광한루에서 그녀를 타는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몽룡은 자신이 부리는 방자에게 성춘향을 데려오라고 시킨다. 방자는 성춘향에게 다가가 이몽룡의 뜻을 전한다.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뻐야라. 다 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녀를 닦을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 별수 없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다. 말인즉 옳도다.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방자 그 전갈을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 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여염 처자 불러 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춘향이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로 건너갈 제,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의 씨암탉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월(越)나라 서시(西施)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늘흐늘 건너온다. <중략>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고운 음성으로 여쭙오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이 도령 하는 말이,

④“네 말을 들어 보니 어찌 아니 기특하라.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금석 같은 맹세하리라. 네 집이 어디메냐?”

춘향이 여쭙오되,

“방자 불러 물으소서.” / 이 도령 허허 웃고,

“내 너더러 묻는 일이 허황하다. 방자야!” / “예.”

“춘향의 집을 네 일러라.” / 방자 손을 던지지 들어 가리키는데, / “저기 저 건너 동산은 울울하고, 물고기 뛰노는 푸르고 푸른 연못 가운데 신비한 화초가 무성하고, 나무마다 앉은 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바위 위 굽은 솔에 맑은 바람이 건듯 부니 늙은 용이 서려 있는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문 앞의 버들, 들쭉나무, 측백나무, 전나무며 그 가운데 행자목은 음양(陰陽)을 좇아 마주 서고, 오동나무, 대추나무, 깊은 산중 물푸레나무, 포도, 다래, 덩굴나무 넉출 휘휘친친 담겨 담장 밖에 우뚝 솟았는데, 소나무 정자가 대나무 숲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게 춘향의 집일러라.”

도련님 이른 말이,

“집이 정결하고 송죽(松竹)이 울창하니 여자의 정절을 가히 알리로다.”

춘향이 일어나며 부끄러이 여쭙오되,

⑤“세상인심 고약하니 그만 놓고 가야겠소.”

도련님 그 말을 듣고,

“기특하다. 그럴듯한 일이로다. 오늘 밤 퇴령 후에 너의 집에 갈 것이니 팔시나 부디 마라.” / 춘향이 대답하되,

“나는 몰라요.” / “네가 모르면 쓰겠느냐. 잘 가거라. 오늘 밤에 서로 만나자.” / 누각에서 내려 건너가니 춘향 어미 마중 나와,

“애고 내 딸 다녀오냐. 도련님이 무엇이라 하시더냐?”

“무엇이라 하긴요. 조금 앉았다가 가겠다고 일어나니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시마 하옵디다.”

“그래 어찌 대답하였느냐.” / “모르다 하였지요.”

⑥“잘하였다.” / 이때 도련님이 춘향을 서둘러 보낸 후에 잇을 수가 없어 공부방에 돌아와도 만사에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춘향이라. 말소리 귀에 쟁쟁, 고운 태도 눈에 삼삼하다.

(나) 이렇듯 요란할 제, 온갖 깃발이며 삼현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 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등덩실 하는 소리에 여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쭙어라.” / 저 사령의 거동 보소.

“우리 사또님이 걸인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등을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宦)*인가.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 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 본관 사또 하는 말이, /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중

략>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官長)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 춘향이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 수의사또 들조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실 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 어사또 분부하되, /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대상(臺上)*을 살펴보니 걸객(乞客)으로 왔던 낭군. 어사또로 뚜렷이 되었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낭군 좋을시고, 남원 읍내 추절(秋節)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춘풍(梨花春風)* 날 살린다. 꿈이나 생시나, 꿈을 깰까 염려로다.” /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모 들어와서 가없이 즐거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說話)하라.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쏘냐?

*명관(名官) : 정치를 잘하여 이름이 난 관리.

*층암절벽(層巖絶壁) : 몹시 험한 바위가 겹겹으로 쌓인 낭떠러지.

*청송녹죽(靑松綠竹) :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

*대상(臺上) : 높은 대의 위

*이화춘풍(梨花春風) : 오얏꽃에 부는 봄바람

- 작자 미상, 「춘향전」

동백고등학교 (경기)

7.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옛글을 인용하여 서사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 ③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 간의 대립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용모와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동백고등학교 (경기)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춘향’에게 만남을 청하는 이유를 처음과 달리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몽룡’의 ‘춘향’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 : 서로 다른 신분인 두 인물이 사랑을 하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 : ‘춘향’의 대답에 ‘몽룡’이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사회가 추구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연애는 당시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 ⑤ ㉢ : ‘춘향’의 대답을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 ‘춘향 어미’는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긍정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동백고등학교 (경기)

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다고 할 때, <보기>의 ㉠과 ㉡이 모두 드러나는 부분을 (나)에서 찾으려면?

<보기>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기록물로 정착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에서 비롯되는 여러 특징이 나타난다.

형식적인 측면의 특징으로는 음악적인 율격, 편집자적 논평, 장면 극대화 현상이 있다. 판소리는 창, 아니리, 너름새로 구성되는데 그 중 노래인 창 의 영향을 많이 받아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음악적인 율격이 나타난다. ㉠편집자적 논평은 판소리가 연행되는 장면에서 창자가 청중에게 읊던 부분을 문자로 옮긴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장면이 극단적으로 확장되는 장면 극대화 현상이 나타난다.

판소리는 호남의 무가(巫歌)권에서 생성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민들 속에서 서민들의 호응과 관심 속에 연행되어 왔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서민적 지향 의식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특히 하층민들의 소망을 대변하거나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편집자적 논평 : 작가 혹은 서술자가 작품 속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작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작가(편집자)가 직접 작품에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뻐이라. 다
 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댕을 뿐 아니라, 설
 혹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 처녀
 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
 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 별수 없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
 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즉 옳도다.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방자 그 전갈을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 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
 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여염 처자 불러 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
 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았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
 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
 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神通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춘향이가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
 로 건너갈 제,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걸음으로, 양
 지(陽地) 마당의 씨암탉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
 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월
 (越)나라 서시(西施)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늘흐늘 건너온
 다. 도련님 난간에 절반만 비껴서서 그옥이 바라보니 춘향이
 가 건너오는데 광한루 가까이 온지라. 도련님 좋아라고 자세
 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설월(雪
 月)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
 도 같고 옥도 같다. 연지를 품은 듯, 자줏빛 치마 고운 태도
 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
 러이 서 있거늘, 통인 불러 말한다. “앉으라고 일러라.”
 춘향이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갓 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재계하고 앉은 제비가 사
 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 가
 인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중략>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
 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고운 음성으로 여쭙오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이 도령 하는 말이,
 “네 말을 들어 보니 어찌 아니 기특하랴.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금석 같은 맹세하리라. 네 집이 어드메냐?”
 - 작자미상, 「춘향전」

무학여자고등학교 (서울)

1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향이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인물이다.
- ② 춘향이의 모친은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 ③ 춘향이의 아름다움을 은유법, 직유법, 열거법 등을 사용해서 표현했다.
- ④ 주인공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는 유교적 가치관에 의한 신분적 제약이다.
- ⑤ 구전 설화에서 출발하여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창작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무학여자고등학교 (서울)

11. ㉠의 삶의 자세를 가장 잘 형상화한 것은?

- ① 내 일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뢰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 윤선도
- ② 서방님 병들여 두고 쓸 것 업서
종루 저지 달리 파라 비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사다
아차아차 이저고 오화당을 니저발여고나
수박에 술 쏘즈 노코 한숨계워 흐노라
- 김수장
- ③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 서경덕
- ④ 아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흐여라.
디나간 휘면 애둡다 엇디흐리.
평칭에 고터 못홀 이리 이뿐인가 흐노라.
- 정철

- 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엇는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두쳤논이.
잔 자바 권허리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 임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광한루에서 그네를 타는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몽룡은 자신이 부리는 방자에게 성춘향을 데려오라고 시킨다. 방자는 성춘향에게 다가가 이몽룡의 뜻을 전한다.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리도 없다.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 별수 없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다. 말인즉 옳도다.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 이리 하여라.” 방자 그 전갈을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지니, 그 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 여염 처자 불러 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 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앉아 정 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춘향이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로 건너갈 제,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의 씨암탉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월(越)나라 서시(西施)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늘흐늘 건너온다. 도련님 난간에 절반만 비껴서서 그옥이 바라보니 춘향이 건너지는데 광한루 가까이 온 지라. 도련님 좋아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설월(雪月)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연지를 품은 듯, 자줏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악에 비치는 안개 같고,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통인 불러 말한다.

“앉으라고 일러라.” 춘향이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갓 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재계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 가인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

월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이때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 천하의 호걸(豪傑)이요 세상의 기이한 남자라. 이마가 높았으니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을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다. 흠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모아 단정히 앉을 뿐이로다. 이 도령 하는 말이, “옛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했으니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뇨?” “성은 성(成)가웁고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이 도령 거동 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연세 들어보니 나와 동갑인 ㉣이팔이라. 성씨를 들어 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일시 분명하다. 혼인하여 좋은 연분 만들어 평생 같이 즐겨 보자. 너의 부모 모두 살아 계시나?” “편모㉤슬하로소이다.”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올해 옥십 세를 맞은 나의 모친이 무남독녀라. 나 하나요.” “너도 귀한 딸이로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 보자.”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여 고운 음성으로 여쭙오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 후에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야탑고등학교 (경기)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의 주제가 명시적(明示的)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조선시대 신분 질서에 따른 언어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쓰이고 있다.
- ④ 인물에 대한 인물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만남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야탑고등학교 (경기)

14.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일반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 ② ㉡ - 새의 걸음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맵시 있게 아장거리며 걷는 걸음을 말한다.
- ③ ㉢ - 가을 물처럼 맑고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이라는 뜻이다.
- ④ ㉣ - 춘향이와 이몽룡의 나이가 둘 다 16살이다.
- ⑤ ㉤ - 가슴 아래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홀어머니의 품안을 의미한다.

- 끝 -

4-(1) 제망매가

4-(1) 제망매가

◆핵심 정리

갈래	10구체 향가	성격	추모적, 애상적, 종교적
제재	누이의 죽음		
주제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재회를 소망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이와의 사별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함. •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죽음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전체 구성

1~4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애처로움
5~8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
9~10구	인간적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종교적 극복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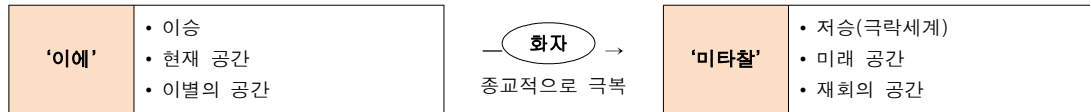
1. 비유적 표현의 의미와 효과

비유적 표현		의미	대상	
나룻잎	‘이른 부르매’	누이의 때 이른 죽음에 대한 놀람과 안타까움 (아쉬움)	요절	누이
	‘뜨리딜 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떠 올리게 하는 계기	죽음	
	‘흔든 가지’	누이의 죽음에 화자가 무심할 수 없는 까닭	같은 부모	

↓

효과	한 가지에서 난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여, 누이의 요절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함.
----	---

2. 공간의 대비와 화자의 태도



4-(1) 제망매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生死(생사)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눈 가늠다 말스도
 묻다 니르고 가늠넛고.
 어느 古詩 ㉠이른 부러매
 이에 蔑에 ㉡쁘러덜 넛곤
 훈든 가지라 나고
 ㉢가는 곧 모든론던.
 아야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도(道)닷가 기드리고다.(김완진 해독)
 - 월명사, 「제망매가」

(나)
 간 봄 그리매
 모든 것사 우리 시름
 아흠 나토사온
 즈시 살쫂 다니져.
 눈 돌칠 스이에
 맛보옵디 지소리.
 낭(郎)이여 그릴 ㅁㅁ미 녀올 길
 다붓 ㅁㅁ히 잘 밤 이시리. (김완진 해독)
 - 득오, 「모죽지랑가」

(다)
 늦겨곰 부라매
 이슬 불간 두라리
 흰 구름 조초 떠 간 언저레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기랑이 즈시올시 수프리야.
 일오나릿 지벼괴
 낭이여 디니더시온
 ㅁㅁ미 古詩 쫂느라져.
 아야, 자싯가지 노포
 누니 모돌 두풀 곳가리여. (김완진 해독)
 - 총담사, 「찬기파랑가」

오금고등학교 (서울)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감정을 절제하는 담담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탄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구체적 공간을 설정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인

식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시 속에 화자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색채 대비를 통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2. (가)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골 옛집 앞을 지나
 뒷산 등성이를

 오늘은 상여(喪輿)로 넘으시는 아버지.

 낮익은 고갯길엔
 마른풀 희게 우거졌고

 이른 봄 찬 날씨에
 허허로운 솔바람 소리.

 -아버지,
 생전(生前)에 고갯길을 몇 번이나
 숨차시게, 숨차시게 넘으셨던가요?
 - 김종길, 「고갯길」

- ① 죽음이 끝은 아니니,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거라 믿고 슬픔을 이기십시오.
- ② 슬픔에만 빠지지 마시고 남아 있는 가족을 생각하셔서 힘을 내십시오.
- ③ 너무 슬퍼하면 아버님도 마음 편히 못 가실 것이니 이제 눈물을 거두십시오.
- ④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언제나 슬픈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 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니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 여기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4-(1) 제망매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生死(생사)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묻다 니르고 가느닛고.
 어느 古(고)술 이른 부루매
 이에 데에 뿌러딜 님근,
 ① 흔돈 가지라 나고
 가논 곧 모드르던
 아야 ②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도(道)닷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

(나)
 ③ 가시리 가지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지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ㅎ고
 부리고 가지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후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⑤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 월명사, 「가시리」

(다)
 덕(德)으란 곰비에 받잡고
 복(福)으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⑥ 정월(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ㅎ올로 널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블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니미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문
 넷나를 님고신더
 아으 동동(動動)다리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하야 두고
 니물 혼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십이월(十二月)스 분디남즈로 갓곤
 아으 나솔 반(盤)잇 저 다호라
 ⑦ 니미 알피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미상, 「동동」

달천고등학교 (울산)

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 (다)와 달리 낙구의 감탄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나)는 (가), (다)와 달리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바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다)는 (가), (나)와 달리 후렴구를 통해 송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부재한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이승과 대비되는 곳으로 시적 대상과 재회할 공간이다.
- ② ㉡ 여음을 제외하면 3.3.2조의 3음보 율격을 보여주고 있다.
- ③ ㉢ 구전되어 오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다.
- ④ ㉣ 임과 대조되는 자연물을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해 화자의 소망이 좌절된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9. (가)의 화자 [A]와 <보기>의 화자 [B]가 나눈 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간 봄 그리매
 모든 것사 우리 시름
 아릅 나토사온
 즈시 살쫂 다니져
 눈 돌칠 수이에
 맛보옵디 지소리
 낭(郎)이여 그릴 무슴미 녀올 길
 다붓 모술히 잘 밤 이시리

- 득오, 「모죽지랑가」

- ① [B] : 훌륭한 인품의 죽지랑이 지금 제 곁에 없다니 애통합니다.
- ② [A] : 죽은 누이에게 제가 직접 하직인사를 못해서 속상합니다.
- ③ [B] : 죽지랑과 함께 했던 지난 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 ④ [B] : 또한, 지금은 죽지랑을 만날 수 없어서 슬픔입니다.
- ⑤ [A] : 불도에 정진함으로써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10.

- (1) (가), (나), (다)의 갈래를 각각 쓰시오.
- (2) ㉠, ㉡를 현대어로 풀이하고,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3) (다)에서 임을 비유한 말을 모두 찾아 적고, 이를 바탕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4-(1) 동동

4-(1) 동동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성격	민요적, 송축적, 연가적(戀歌的)
형식	분연체, 율령체	제재	세시 풍속, 자연물, 남녀의 이별 등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과 화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 • (1)연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이며,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음. • 후렴구 '아으 동동(動動)다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킴. 		

◆전체 구성

		중심 내용	소재	세시 명절
서사		임(임금)의 덕(德)과 복(福)을 기원함.		-
본사	1월령	임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함.	나릿 물	-
	2월령	임의 빼어난 인품을 예찬함.	등(燈)스불	연등회
	3월령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함.	돌잇곳	-
	4월령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며 원망함.	곳고리 새	-
	5월령	임의 장수를 기원함.	아춤 약(藥)	수릿날(단오)
	6월령	버림받은 처지에도 임을 따름.	빗	유두일
	7월령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함.	백종(百種)	백종(백중날)
	8월령	임을 그리워함.	가배(嘉俳)	가배(한가위)
	9월령	임이 계시지 않아 쓸쓸해함.	황화(黃花)꽃	중양절
	10월령	임에게 버림받아 슬퍼함.	부룻	-
	11월령	임과 떨어져 있어 외로워함.	한삼(汗衫)	-
	12월령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퍼함.	저	-

*임과 화자를 비유한 시구

대상	월	시어	대상의 특성
임	2월	노피 현 등(燈)스불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임.
	3월	돌잇곳	아름다운 모습을 지님.
화자	6월	별해 부른 빗	임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임.
	10월	저미연 부룻	
	12월	반(盤)잇 저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함.

4-(1) 동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덕(德)이란 곰비에 받잡고
 복(福)이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후 생략>

정월(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념셔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샏다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니미 브롤 즈슬
 디녀 나샏다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문
 ㉣넛나를 닛고신더

오월(五月) 오 일(五日)에
 아으 수릿날 아츰 약(藥)은
 즈믄 힐 장존(長存)흥샏
 약(藥)이라 받잡노이다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부론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니노이다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하야 두고
 니를 흥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팔월(八月)스 보로문
 아으 가배(嘉俳) 나리마론
 니를 뵈셔 녀곤

오늘날 가배(嘉俳)샏다

구월(九月) 구일(九日)에
 아으 약(藥)이라 먹논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하애라

시월(十月)에
 아으 저미연 부룻 다호라
 것거 부리신 후(後)에
 ㉤디니실 흥 부니 업스샏다

십일월(十一月)스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汗衫) 두퍼 누워
 슬홀스라온더
 고우닐 스키옴 념셔

십이월(十二月)스 분디남즈로 갓곤
 아으 나솔 ㉥반(盤)잇 저 다호라
 니미 알피 드러 얼이노니
 쇼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 작자미상, 「동동(動動)」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가요로서 최초의 월령체 형식의 시가이다.
- ②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별에 따른 정한을 그리고 있다.
- ③ 각 달의 세시풍속이나 자연의 변화 양상을 다채롭게 그려냈다.
- ④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아 비슷한 성격의 여러 노래의 합성으로도 볼 수 있다.
- ⑤ 경치에 대한 묘사를 전제로 임에 대한 영원한 기다림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송축(頌祝)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 ② ㉡ : 각 연에 형태적인 통일감 및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구절이다.
- ③ ㉢ : 시적 대상의 뛰어난 자질에 대한 예찬적 성격으로 이

해할 수 있는 구절이다.

- ④ ㉔ : 시적 대상과 함께 한 지난날을 추억하며 그리움에 빠져 있음이 드러난 구절이다.
- ⑤ ㉕ : 사물의 속성과 화자 자신의 처지가 유사함을 전제로 표현한 구절이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3. 이 시의 화자가 썼을 법한 일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월 : 봄기운이 감도는 들에 나가 어느덧 녹아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가는 나의 처지가 무척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 ② 3월 : 늦봄에 들에 산에 활짝 핀 진달래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느껴졌다.
- ③ 6월 : 여기저기 흐르는 냇물에 머리를 감고 버려진 빛을 보니 어쩐지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우울함이 느껴졌다.
- ④ 9월 : 주변에서는 국화꽃으로 국화전이며 차를 마신다고 하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집만은 고요함만 느껴졌다.
- ⑤ 11월 : 날은 벌써 추워져 집마저 한기가 느껴지는데 차가운 잠자리에서 임의 생각만 더욱 간절하여 슬픔이 느껴졌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4. 위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노스룩(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단한림(陣翰林) 쌍운주필(雙韻走筆)
 통기디칙(沖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당(試場)스 경(景) 그 엇더하니이고.
 엽(葉) 금혹스(琴學士)의 옥순문싱(玉筍門生) 금혹스(琴學士)의 옥순문싱(玉筍門生)
 위 날조차 몇부니이고. <제1장>
 - 한림 제유, 「한림별곡」중에서

현대어 풀이

•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록변려문, 이규보와 진화의 쌍운을 맞추어 써 내려간 글, 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해의(海衣), 김양경의 시와 부(賦)(아, 과거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굉장하다)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나까지 몇 분입니까?)

- ① 위 시와 <보기>는 모두 시적 상황에 따른 화자의 내면적 반응을 다룬 자아의 세계화가 일어난다.
- ② 위 시와 <보기>는 모두 비슷한 시기의 시가로 음악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③ 위 시는 각 연의 끝부분에 분연의 기능을 한 후렴구가 있고 <보기>에는 장르 명칭과 관련된 후렴구가 쓰였다.
- ④ 위 시가 순우리말의 다양한 문학적 표현으로 쓰였다면 <보기>는 단순한 한자어의 나열로 이뤄져 있다.
- ⑤ 위 시는 평민들의 생활 감정이 드러난다면 <보기>는 지배층의 학문적 자기 과시가 나타난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5. ㉔의 시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소재를 모두 찾아 쓰시오.

4-(1) 동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덕(德)이란 공비에 받잡고
 복(福)이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녀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웠고지어
 니미 브롤 즈슬
 디녀 나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몬
 냇나를 닛고신더
 아으 동동(動動)다리

오월(五月) 오 일(五田)애
 아으 수릿날 아츰 약(藥)은
 즈몬 힐 장존(長存)흥살
 약(藥)이라 받잡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물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흥야 두고

니물 흥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팔월(八月)스 보로몬
 아으 가배(嘉俳) 나리마곤
 니물 뵈셔 녀곤
 오늘났 가배(嘉俳)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구월(九月) 구일(九日)애
 아으 약(藥)이라 먹논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흥애라
 아으 동동(動動)다리

시월(十月)애
 아으 저미연 브룻 다호라
 것거 브리신 후(後)애
 디니실 흥 부니 업스샏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십일월(十一月)스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汗衫) 두퍼 누워
 슬홀 ㉢스라운더
 고우닐 스키움 녀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십이월(十二月)스 분디남즈로 갓곤
 아으 나솔 반(盤)잇 저 다호라
 니미 알피 드러 ㉣얼이노니
 쇼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미상, '동동'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내용과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화양계, 공방전과 같은 계열의 작품이다.
- ②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열두 달에 맞추어 노래한 작품으로 한림별곡, 공무도하가와 같은 갈래의 작품이다.
- ③ 우리말로 불리면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특성이 있는 서정 가요로 황조가, 처용가와 유사한 계열의 작품이다.
- ④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아 작가 한사람이 표출한 정서로 보기 힘들며, 이런 점에서 농가월령가와 유사한 성격의

작품이다.

- ⑤ 고려 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악학궤범에 한글로 실려 있는 작품으로 서경별곡, 정석가와 같은 갈래의 작품이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윷글의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소리 '동동'의 의태어라고 할 수 있다.
- ② 작품에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③ 반복을 통해 시상전개에 있어 안정감을 줄 수 있다.
- ④ 작품에 운율감을 주어 흥겨움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 ⑤ 민간에서 불리다 궁중음악으로 유입될 때 첨가된 것이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8. 윷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과 12연에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한탄이 보인다.
- ② 3연과 4연에서 임의 인격과 모습을 송축하고 있다.
- ③ 5연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다.
- ④ 7연과 10연에서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이 보인다.
- ⑤ 13연에서 임과 사랑을 맺지 못한 화자의 처지가 나타난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9. 윷글의 ㉑ ~ ㉓을 현대어로 풀이해 쓰시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10. 윷글과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특징 두 가지를 쓰시오.

<보기>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 작자 미상, '가시리'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11. 윷글의 2월, 6월 그리고 9월에 나타난 세시풍속이 무엇인지 쓰시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4-(1) 동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월(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널셔
 아으 동동(動動) 다리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 다리

삼월(三月) 나며 개(開)한
 아으 만춘(滿春) 들릿고지여
 녹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 다리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몬
 넷나를 닛고신더
 아으 동동(動動) 다리

오월(五月) 오 일(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츰 藥(약)은
 즈믄 힐 長存(장존)흥샷
 藥(약)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동동(동동) 다리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믄
 적곰 쫓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 다리

[현대어 풀이]
 정월의 넷물은
 아아 열고 녹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이 몸은 홀로 살아가네
 아으 동동다리

이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켌
 등불 같구나
 만 사람 비취실 모습이시네.
 아으 동동다리

삼월 지나며 핀
 아아 봄 산 가득 진달래꽃.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너 나셨네.
 아으 동동다리

사월 아니 잇어
 아아 오시는구나 꾀꼬리 새여
 어이타 녹사님은
 옛날을 잇고 계신지요.
 아으 동동다리

오월 오 일에
 아아 단오날 아침 약은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웁니다.
 아으 동동다리

유월 보름에
 아아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돌아보실 입을
 잠깐 좃아갑니다.
 아으 동동다리

- 작자 미상, '동동(動動)'

추례여자고등학교 (부산)

12. 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월령체 형식의 노래로 당시의 세시풍속이 반영되어 있다.
- ③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④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성을 획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자연과 자신을 대조하여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13. <보기>의 ㉠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연을 위 작품에서 고르면?

<보기>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잡스와 두어리마논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논 듯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聖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① 정월령 ② 이월령
- ③ 사월령 ④ 오월령
- ⑤ 유월령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14. 위 작품에서 임 또는 화자를 비유한 표현 3개를 찾아 쓰시오. 단, <예시> 답안을 참고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서술할 것.

<예시>

12월령의 '소반의 저(젓가락)'는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덕(德)으란 곰비에 받좁고
 복(福)으란 림비에 받좁고
 덕(德)이어 복(福)이라 호놀
 나수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1연>

정월(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 뭍하 흐올로 녀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2연>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3연>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릿고지여
 니미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4연>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곤
 냇나를 닛고신더
 아으 동동(動動)다리 <5연>

오월(五月) 오 일(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츰 약(藥)은
 즈믄 힐 장존(長存)흐살
 약(藥)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6연>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 별해 브론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7연>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흐야 두고
 니믈 흐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8연>

팔월(八月)스 보로몬
 아으 가배(嘉俳) 나라마론
 니믈 뵈셔 녀곤
 오늘날 가배(嘉俳)샷다

4-(2) 이생규장전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소설, 전기 소설(傳奇小說)	성격	전기적, 낭만적, 비극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배경: 고려 공민왕 때 • 공간적 배경: 개성
제재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사랑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남. •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남. • 시를 삽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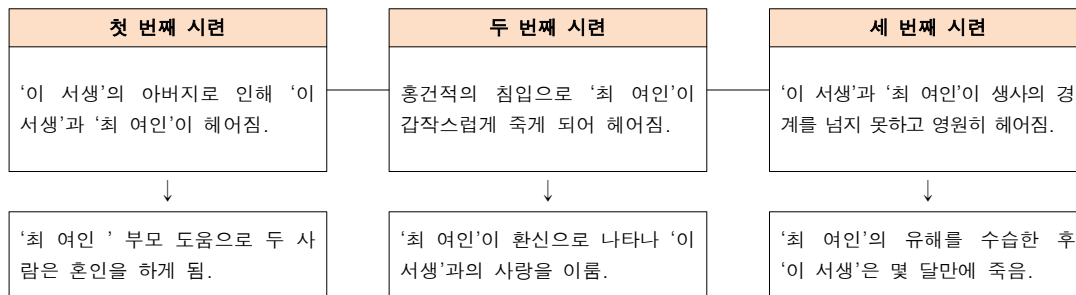
◆전체 구성

발단	'이 서생'이 '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눔.
전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이 서생'의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함.
위기	흉건적의 침입으로 '최 여인'이 죽게 됨.
절정	'이 서생'과 '최 여인'의 환신이 재회하여 행복하게 지냄.
결말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영원한 이별을 함.

1. 작품에 나타난 전기 소설의 특징

재자가인(才子佳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서생'은 용모가 준수하며 재주가 뛰어남. • '최 여인'은 자수와 시문에 능하며 매우 아름다움.
비현실적인 상황과 사건	죽은 '최 여인'이 환생하여 '이 서생'과의 인연을 이어감.
한문 문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 문체의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여 서술함. • '최 여인'이 '이 서생'과 작별하며 이별과 죽음의 슬픔을 한시로 표현함.

2. 주인공이 겪는 세 가지 시련과 그 대응



4-(2) 이생규장전

3. '최 여인'의 환생이 갖는 의미

- '이 서생'과의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임.
-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냄.

4. 삽입된 노래의 기능

정서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독자에게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줌. •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함.
서사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줌. •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함. •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함.

5.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 의식

『이생규장전』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여타 고전 소설과는 달리 비극적 결말을 보여 준다. 이는 작가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사육신의 죽음 이후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냈던 김시습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6.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생사관

작가는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에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을 알 수 있다.

7.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의 공통점

<p>『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남염부주지」,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용궁부연록」, 「취유부벽정기」를 전함.</p>	→	<p>작품들의 공통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킴. • 적극적이며,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상을 구현함. • 애민적(愛民的) 왕도 정치 사상이 드러남. •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을 지향함.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詩書)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중략>

[A]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찌꺼기는 창자에만 맷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중략>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서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 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메어 울었다. 이 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玉樓春曲)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B] 도적 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혼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돌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서생도 또한 슬픔에 견잡지 못했다. <중략>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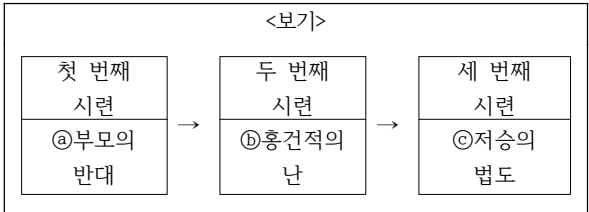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중심 서사 요소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는 자유연애를 허락하지 않는 봉건적 관습을 의미한다.
- ② ㉡에서 '최 여인'은 정절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강인한 면모를 드러낸다.

- ③ ㉞로 인한 최 여인의 죽음을 ‘환생’이라는 환상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 ④ ㉟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이기에 전기적(傳奇的)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 ⑤ ㉠, ㉡, ㉢를 통해 자아와 세계의 치열한 대결이 드러난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지난 일에 대한 내력이, [B]는 이별을 앞둔 슬픔이 드러난다.
- ② [A], [B] 둘 다 전고(典故)를 활용하여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A]에서는 등장인물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만, [B]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 ④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B]는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 ⑤ [A]에서 발생한 문제적 상황이 [B]를 통해 해결됨으로써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부각된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B]의 삽입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한 가지씩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정서적 기능	㉠
서사적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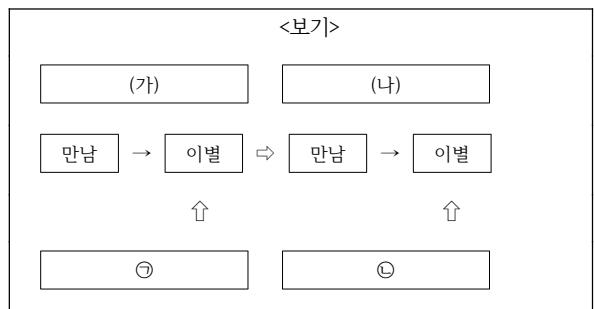
오금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대화와 삽입된 시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재자가인(才子佳人)형 인물을 주축으로 전기적인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5. 윗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여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최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정절을 중시하는 유교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
- ② 최랑과 이생은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불태우며, ㉡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가)의 ‘만남’은 (나)와 달리 제도적 장애를 극복하여 이론 결과로, 작가의 진보적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④ (나)의 ‘만남’은 (가)와 달리 초월적 존재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나 운명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 ⑤ (가)는 현실적 사건을, (나)는 비현실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나)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없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붙잡고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맷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낭군과 저와는 삼세의 깊은 인연이 맺혀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뵈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낭군께서 지금도 삼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 이튿날 여인은 이 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五冠山)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란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

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길흉사(吉凶事)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마) 최 여인은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玉樓春曲)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 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 주리
피투성이 그 유혼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라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바)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중간에 시를 삽입하여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을 드러낸다.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7. 뒷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 여인은 갑작스런 횡액에 흥진비래(興盡悲來)를 깨닫고 있어.
- ② 이 서생은 최 여인을 오매불망(寤寐不忘)하다 죽음을 맞이 하는 지고지순(至高至順)한 인물이야.
- ③ 최 여인은 흥건적에게 죽임을 당한 각골통한(刻骨痛恨)의 심정을 이 서생에게 솔직하게 토로하는 적극적인 인물이야.
- ④ 이 서생과 최 여인은 뛰어난 용모와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 아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재자가인(才子佳人)형 인물이야.
- ⑤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환생한 최 여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생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지닌 인물이야.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8. 뒷글을 바르게 감상한 것은?

- ① 도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최 여인이 언급한 삼세의 인연이 지닌 의미를 해석한다.
- ②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부모의 유해를 모아 매장하고 장사를 치르는 행동의 의미를 해석해본다.
- ③ 최 여인을 따라 죽음을 맞는 이 서생을 통해 이승과 저승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글쓴이의 생사관을 파악한다.
- ④ 최 여인이 환생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은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려는 소설적 장치임을 이해한다.
- ⑤ 두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어긋난 사랑이 초래하는 비극성을 심화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임을 이해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장 너머로 던지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 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귄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詩書)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백 년을 넘었습니다. 사체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써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붙잡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낭군과 저와는 삼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뵈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낭군께서 지금도 삼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서생은 기쁘고 또 고마워서, /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家産)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 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에 같이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이 서생'의 부모가 집안의 문벌 차이를 이유로 혼인을 반대한다.
- ② '이 서생'은 살아 돌아온 '최 여인'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다.
- ③ 두 사람의 사랑은 흥건적의 난으로 인해 두 번째 시련에 맞닥뜨린다.
- ④ '이 서생'과 '최 여인'은 담 너머로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 ⑤ '최 여인'은 흥건적의 무리에 맞서 싸워 정조를 지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10. ㉠과 관련된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장춘몽(一場春夢) ② 두문불출(杜門不出)
- ③ 호사다마(好事多魔) ④ 고진감래(苦盡甘來)
- ⑤ 흥진비래(興盡悲來)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이 서생은 최 여인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서생의 아버지가 이 서생을 시골로 쫓아 버리자, 최 여인은 상사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된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모가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두 사람의 혼례를 성사시킨다. 이후 이 서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지만 흥건적의 난이 일어난다.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가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귄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詩書)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백 년을 넘었습니다. 사체가 이렇게 되자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형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없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낭군과 저와는 삼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뵈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낭군께서 지금도 삼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분디 나의 소원이요.”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②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란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의 길흉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이르기를,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㉔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올었다. 이 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㉓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玉樓春曲)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 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 주리

피투성이 그 유혼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라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서생도 또한 슬픔에 견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

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純孝)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 김시습, 「이생규장전」

달천고등학교 (울산)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자가인(才子佳人)인 주인공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다.
- ② 전기적 사건 전개 양상이 돋보이는 비극적 결말의 영혼소설이다.
- ③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주인공들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와 갈등한다.
- ④ 노래(시)는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⑤ 소설 속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달천고등학교 (울산)

1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전쟁 후 폐허가 된 배경 묘사로, 이 서생의 쓸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이 서생이 느낀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정절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여인이 죽게 된 원인이 나타난다.
- ④ ㉣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여인은 지킬 수 없는 약속에 대해 자책한다.
- ⑤ ㉤ 여인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로,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발전고등학교 (울산)

13.

(1) ㉠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적으시오.

(2)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나 가치관의 측면에서, ㉠의 이 서생과 <보기>의 화자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웅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오.

- 정약용, 「보리타작」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송도(松都)의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 여인을 보게 된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가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게 되고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이 서생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 최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이를 알게 된 최 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辛丑年)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는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

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詩書)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백 년을 넘었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없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최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낭군과 저와는 삼세의 깊은 인연이 맺혀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뵈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낭군께서 지금도 삼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서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오.”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 서생은 최 여인과 함께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을 거두고 최 여인이 묻어 두었던 재물을 팔아 제사를 지낸다. 이 서생은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아내와 함께 시구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세월을 보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최 여인이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별을 고한다. 최 여인은 잠시 환생한 몸으로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이 서생은 차라리 함께 황천으로 가겠다고 슬퍼한다.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께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나) 신라 풍속에 매년 춘춘(仲春, 음력 2월) 8일에서부터 15일에 이르기까지 도읍의 남녀들이 다투어 흥륜사의 탑을 도는 복회(福會)를 열었다.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낭군(郎君)이 있었는데, 밤늦도록 혼자 쉬지 않고 돌았다. 한 여자도 따라 돌고 있었는데, 현이 드디어 정을 통하여 그 여자를 따라 갔다.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내일 성내에 들어가서 해로운 일을 하면, 곧 왕은 반드시 좋은 벼슬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북쪽이 숲 속으로 나를 쫓아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지어서 좋은 업보(業報)를 얻게 해주신다면, 곧 낭군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성에 들어왔는데, 당할 사람이 없었다. 왕이 영을 내려, “능히 호랑이를 사로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주겠노라.”하니, 김현이 대궐에 나아가 아뢰어 말하기를,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단검을 들고 북쪽의 숲으로 들어갔다. 호랑이가 낭자로 변해서 웃으며 말하기를,

“어제의 곡진했던 사연을 오직 낭군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더니,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고 쓰러지니 곧 호랑이었다. 그 후 김현이 벼슬길에 오른 뒤 서쪽 냇가에 절을 짓고, 이름을 ‘호원사(虎願寺)’라고 했다.

- 작자 미상, 「호원(虎願)」

덕원고등학교 (대구)

14. (가)의 ㉠~㉢에 드러난 소설의 갈등 양상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와 이에 저항하는 자아의 갈등
- ② ㉡ :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한 세계의 횡포와 이에 순응하는 자아의 갈등
- ③ ㉢ : 개인의 힘을 벗어난 자연의 재난과 이를 극복하려는 자아 사이의 갈등
- ④ ㉣ : 개인과 개인이 지닌 욕망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분열된 자아의 내적 갈등
- ⑤ ㉤ : 생사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계와 이에 대항하는 자아의 갈등

덕원고등학교 (대구)

1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감정의 긴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 : 이승의 살아있는 존재가 저승의 혼백과 사랑을 한다는 점은 몽유설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가) : 최 여인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인연을 저승에서라도 이루고자 하므로 적극적인 인물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 : 이별의 상황이 변신형 모티프를 통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인물들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나) : ‘복회(福會)’의 풍습으로 보아 유(儒)·불(佛)·선(仙)이 통합된 민중의 사상이 구전의 과정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덕원고등학교 (대구)

16. (가)에 드러난 소설의 갈래적 특징을 (나)와 비교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인물의 내면까지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표현이 더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다.
- ③ (가)는 (나)에 비해 인물이 놓인 사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사건의 전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적 특징이 드러난다.
- ⑤ (가)와 (나)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기괴하고 신기한 일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전기적(傳奇的) 양상이 드러난다.

4-(2) 시조 네 편

●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절의적, 풍자적, 비판적
제재	'백이'와 '숙제'의 고사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의와 지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법, 설의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냄. •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의를 부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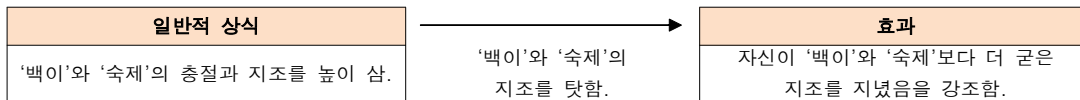
◆핵심 정리

	현대어 풀이	구성
초장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백이'와 '숙제'에 대한 한탄
중장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야 되겠는가?	'백이'와 '숙제'의 행위에 대한 질책
종장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났는가?	굳은 지조와 절개에 대한 다짐

1. 시어의 중의적 의미

'수양산'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산	'수양 대군(세조)'
'채미'	고사리를 캐어 먹음.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祿)을 받음.
'뉘'	주나라의 '무왕'	'수양 대군(세조)'

2.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표현의 효과



● 「이화우(梨花雨) 훑뿌릴 제」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감상적, 애상적
제재	이화우, 추풍낙엽, 이별		
주제	임을 그리는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강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이화우’, ‘추풍낙엽’)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함. •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어를 사용함. 		

◆전체 구성

	현대어 풀이	구성
초장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때에 울며 (손) 잡고 헤어진 임	봄에 임과 이별함.
중장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임도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가을에 임을 그리워함.
종장	천 리 길 (머나먼 곳에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외로워함.

1. 표현상의 특징



4-(2) 시조 네 편

● 「만흥(漫興)」

◆핵심 정리

갈래	연시조	성격	자연 친화적, 탈속적, 자족적
제재	자연을 벗하는 생활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를 사용하여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을 강조함. • 물아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나타나 있음. 		

◆전체 구성

1수	분수에 맞는 삶	숙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2수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	
3수	산을 마주하고 있는 즐거움	
4수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5수	자연생활을 운명으로 여김.	
6수	자신의 생활을 임금의 은혜로 여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1. 현대어 풀이

1수	자연 속에서 바위 아래 띠집을 짓고자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기도 한다마는 어리석고 세상에 어두운 사람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2수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4수	누군가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천자라고 한들 이만큼 좋겠는가?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더라. 아마도 자연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비할 곳이 없으리라.

2.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와 속세를 나타내는 소재

	자연	속세
1수	'산수', '띠집'	'그 모른 놈들'
2수	'보리밥 풋나물', '바윗 곳 뭍?'	'그 나쁜 녀나쁜 일'
4수	'임천한흥'	'삼공', '만승'

●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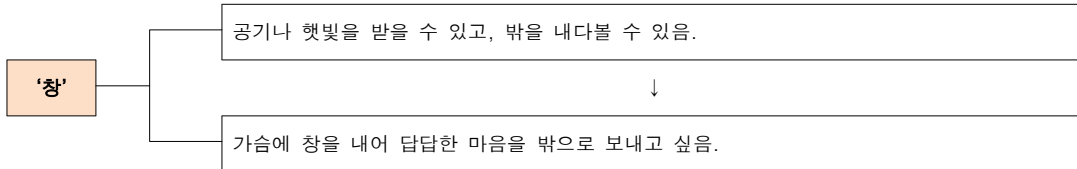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의지적
제재	창		
주제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문학성을 획득함. 비애와 고통을 웃음으로써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임. 		

◆전체 구성

	현대어 풀이	구성
초장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냄.
중장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톨쩌귀, 수톨쩌귀, 배목걸석을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함.
종장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	창을 여닫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함.

1. 시어의 의미와 참신한 발상



화자는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에서 오는 답답함을 풀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창을 내어 여닫고 싶다는 소망으로 표출하고 있다. 가슴을 딱딱 막힌 방에 비유하여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창을 만들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2. 표현상의 특징

반복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a-a-b-a' 구조를 사용하여 창을 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냄.
열거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가슴에다 만들고 싶은 창 종류를 나열하여 무슨 창이라도 만들고 싶은 간절함을 나타냄.
	암돌쩌귀 수돌쩌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송씩 바가	창을 만드는 재료들과 만드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가슴에 창을 만들어 달고 싶은 소망을 나타냄.

반복과 열거를 통한 수다스럽고 과장된 표현은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며, 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상황을 풀어 버리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限)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니 짜해 낫드니
 - 성삼문

(나)
 ㉡이화우(梨花雨) 훗썩릴 제 울며 좁고 이별(離別)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 계량

(다)
 산수 간(山水間) 바희 아래 뒹집을 짓노라 호니
 그 모론 늠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늬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 곳 물궂의 슬궂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제2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똥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 윤선도, 「만흥(漫興)」

(라)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
 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쫓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 작자 미상

광남고등학교 (서울)

1.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수>의 '뒹집'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이다.
- ② <2수>는 '물궂'는 속세의 삶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2수>의 '그 나쁜 녀나쁜 일'은 <1수>의 '산수'보다 <4수>의 '삼공'과 '만승'을 우위에 두는 삶을 의미한다.
- ④ <4수>의 '임천한흥'은 <1수>의 '어리고 하암의 뜻'이 실현된 결과이다.

- ⑤ <1수>, <2수>, <4수>에서의 자연은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공간이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 : '이제'는 자신이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 :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표상한다.
- ③ ㉢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의 표현으로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 ④ ㉣ : 화자와 교감을 나누는 대상으로 삶의 고뇌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존재이다.
- ⑤ ㉤ : 반복과 열거, 대구와 점층법을 활용하여 서민들의 발랄한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가)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표를 완성하고자 할 때, (가)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에 간단히 밝히고, '수양산(首陽山)'과 '채미(採薇)'에 담긴 중의적 의미를 ㉡, ㉢에 간단히 써 넣시오.

	백이숙제의 고사	㉠
'수양산'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 산	㉡
'채미'	고사리를 캐어 먹음	㉢

추례여자고등학교 (부산)

4.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중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나) :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다) : 설의법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라) : 간결하고 정제된 형식 속에 해학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5. (다)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홀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허라
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문내 도하호노라
- ②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드냐
이시랴 허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호노라
- ③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호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쏘이런가 호노라
- ④ 이련들 엇더허며 저련들 엇더하료
만수산(萬壽山) 드령츄이 열거진들 엇더허리
우리도 이긋치 열거져 백 년(百年)썻지 누리리라
- ⑤ 오늘도 다 새겨나,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눈 다 미여든 네 눈 점 미여 주마
올 길헤 뽕 따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6. <보기>는 조선 시대의 고시조를 계승했다고 평가되는 작품이다. 형식면에서 고시조의 어떤 점을 계승하였는지 서술하시오. (2가지 요소를 찾아 서술할 것.)

<보기>

손톱으로 툇 튀기면
뺨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드리우고 있건만.

- 이희승, '벽공(碧空)'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7.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ㄴ. 불가능하고 엉뚱한 상황을 설정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ㄷ.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ㄹ. 일상적 사물들을 열거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ㅁ. 시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여 시적 화자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8. (다)의 시적 화자가 <보기>의 시적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려 보지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는 적네
창밖에는 삼경이 다 되도록 비가 내리는데
등불 앞의 내 마음은 만 리 밖에 가 있네

- 최치원, 「추야우중(秋夜雨中)」

- ① 어지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에 힘쓰십시오.
- ②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며 원망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 ③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십시오.
- ④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가꾸십시오.
- ⑤ 입신양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限)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닐 짜헤 낮드니
 - 성삼문,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놈들은 운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 곳 물?의 슬?까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제2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호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 윤선도, 「만흥(漫興)」

(다)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
 새 크나큰 장도리로 쯤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 작자 미상,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 모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나)는 (다)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다) 모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다)와 달리 중의적 표현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고사(古事)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1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기>

윤선도는 일찍이 벼슬길에 올랐으나 평탄하지 못했고 당쟁(黨爭)의 와중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전원생활을 하였다. 「만흥(漫興)」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해남에 은거하며 지은 작품이다.

- ① ㉠에는 자신을 유배 보낸 무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 ② ㉡에는 권력을 좇는 관료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에는 전원생활을 하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드러난다.
- ④ ㉣에는 속세를 떠나 있지만 늘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충정이 드러난다.
- ⑤ ㉤에는 고향에서의 전원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11. (가)와 (다)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시조의 전개 양상을 향유 계층 변화에 따른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울천고등학교 (경기)

1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중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의탁하여 문제를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울진고등학교 (경기)

13.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대부 시인들의 자연 예찬은 벼슬살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자연 예찬의 노래는 벼슬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쓰라림, 즉 정치적 시련,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지럽게 변하는 현실, 그리고 그에 따라 변신을 거듭하는 인간 무리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반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에는 '벼슬 따위는 할 수 있어도 안 한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연 속에서 도(道)를 추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가 들어있다.

- ① 자신을 '어리고 하얗'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겸손의 태도가 담겨 있다.
- ② '뒹집', '보리밥 풋늬물'은 자연에서 빈곤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소재로 화자의 정치적 시련을 상징한다.
- ③ 속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나쁜 녀나쁜 일'에 대하여 부럽다고 말하면서 정치에 대한 미련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그 모른 놈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히려 화자가 자신의 정치적 업적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비웃는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 ⑤ '만승(萬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도(道)를 추구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교사 :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작품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작가에 대한 이해, 작품과 관련된 작품 외적 이야기 등이 작품 감상에 큰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다음 (가)에 관련된 문학 외적 자료인 [자료1]과 [자료2]를 통해 작품을 감상해보십시오.

[자료1]

이제(夷齊)는 본래 은나라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던 '백이(伯夷)'와 '숙제(叔弟)'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그 신하였던 무왕이 그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며 이를 반대했으나, 무왕은 끝내 새 왕조를 일으켰다. 그러자 두 사람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

[자료2]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집현적 학사 출신으로 목숨을 바쳐 신하의 의리를 지킨 사육신(死六臣)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수양대군(세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르자 이듬해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 발각되어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 ① '푸새엿 것'은 고사리, '뉘'는 주나라 '무왕'과 '수양대군'을 '짜ㅎ'은 '주나라'와 '세조'의 조선을 의미하는군.
- ② [자료1]의 '무왕'과 [자료2]의 '수양대군'은 인의(仁義)를 어겼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③ '한(恨)ㅎ노라'에서 목숨을 던져 절개를 지킨 '이제'의 사연에 탄식하며 그들을 추모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 있군.
- ④ '이제(夷齊)'와 '성삼문'은 죽음으로서 불의에 항거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의 작가는 '채미(採薇)하지 않겠'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의지가 더욱 높다는 것을 드러냈군.
- ⑤ '수양산(首陽山)'은 '이제(夷齊)'가 은둔한 산이라는 의미와 수양대군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 것을 볼 때 세조의 왕위찬탈과 '이제'의 고사를 연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대륜고등학교 (대구)

15. (나)에 나타난 시어나 시구의 의미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답을 서술하십시오.

<보기>			지향하는 삶의 태도
	자연 속의 삶을 드러낸 시어나 시구	속세의 삶을 드러낸 시어나 시구	
1수	'산수', '뒹집'	'그 모른 놈들'	㉠
2수	'보리밥 풋늬물', '바빻 굶 몯?'	㉡	
3수	㉢	'삼공', '만승'	

- <조건>
- (1) ㉡에 들어갈 시어나 시구를 '~(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2) ㉢에 들어갈 시어나 시구를 '~(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3) ㉠에 들어갈 삶의 태도를 '~(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3-(3) 춘향전

1.② 2.① 3.① 4.① 5.(1)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
(2) 표현방법: 직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성춘향의 아름다운 용모 6.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로, 사랑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살펴볼 수 있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지조와 절개를 2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다. 7.① 8.⑤ 9.② 10.① 11.② 13.① 11.② 13.⑤ 14.⑤

4-(1) 주몽 신화

1.③ 2.① 3.(1) 영웅의 일대기 구조 (2)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기이하게 여겨 내다 버리는데 '새와 짐승'이 오히려 지켜주자 다시 유화에게 돌려준다. 4.① 5.③ 6.⑤ 7.③ 8.④ 9.③ 10.④ 11.(1)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시련을 극복한다. (2) 석가세존 12.② 13.㉞ 성장 후 시련 ① 유화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난다. 여기서 햇빛을 받아 잉태를 한다는 것은 선조들의 태양 숭배 사상을 볼 수 있다. ② '주몽'이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고구려를 건국하여 성을 '고'로 삼는다. 14.③ 15.③

4-(1) 제망매가

1.② 2.① 3.도라지꽃, 돌무덤 4.④ 5.⑤ 6.③ 7.① 8.④ 9.② 10.(1) (가): 향가, (나),(다): 고려가요 (2) ㉞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㉞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지만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등불, 만춘 들췌꽃. 임의 인품과 용모를 찬양하는 예찬적 태도를 보인다. 11.③ 12.① 13.③ 14.2월령의 '노피 현 등불'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임을 비유하고 있다. 3월령의 '들췌꽃'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6월령의 '별해 부론 빛'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15.② 16.① 17.② 18.(1) (가) 갈래는 시상이 3단으로 전개되며, 결구의 첫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된다. (2) (다)와 같은 갈래는 3장 구성이며, 종장을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와 같은 갈래가 (다)와 같은 갈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1) 위 증줄가 대평성디 (2)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 음악

으로 유입될 때 절차를 갖추기 위해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 첨가되었을 것이다. 20.④ 21.③④ 22.② 23.[A]는 누이의 죽음에서 두려움과 애처로움을 느끼고, [B]는 누이의 죽음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가 나타난다.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24.③ 25.①

4-(1) 동동

1.⑤ 2.④ 3.② 4.① 5.㉞는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다. 화자를 비유하는 소재는 '별해 부론 빛', '저미연 부룻'이 있다. 6.⑤ 7.① 8.④ 9.㉞ 바치러 ㉞ 사르고 있네 ㉞ 놓으니 10.분연체 형식을 취한다, 각 연에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다. 11.(1) 2월: 연등회 (2) 6월: 유두일 (3) 9월: 중앙절 12.① 13.③ 14.2월령의 '노피 현 등불'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임을 비유하고 있다. 3월령의 '들췌꽃'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6월령의 '별해 부론 빛'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15.③ 16.(1) 1연 (2) 이 작품의 2~13연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고 있으나, 1연은 임금에게 복을 바치러 오라는 송축의 내용이어서 전체적인 내용과 이질적이다. 17.② 18.④ 19.부론 빛, 저미연 부룻, 누술반 잇 저 20.③ 21.③ 22.② 23.⑤ 24.② 25.④ 26.⑤ 27. 몇 개의 연으로 나뉜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연에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다. 28.④ 29.③ 30.① 31.작가는 임의 모습을 '만춘 들췌꽃'에 빗대었고 임의 인품을 '노피 현 등(燈)불'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임을 예찬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32.④ 33.② 34.⑤

4-(2) 이생규장전

1.④ 2.① 3.㉞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㉞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4.① 5.② 6.④ 7.⑤ 8.④ 9.② 10.⑤ 11.⑤ 12.④ 13.(1) 두 문불출 (2) ㉞의 이 서생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부귀공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14.⑤ 15.① 16.④ 17.② 18.② 19.이 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한다. 20.② 21.② 22.① 23.⑤ 24.① 25.⑤ 26.④ 27.② 28.⑤ 29.⑤ 30.① 31.③ 32.② 33.⑤ 34.①

4-(2) 시조 네 편

1.⑤ 2.③ 3.㉠ 세조의 단종 왕위 찬탈 사건 ㉡ 수양 대군(세조) ㉢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을 받음 4. ⑤ 5.④ 6.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다, 3.4(4.4)조의 4음보가 나타난다. 7.① 8.⑤ 9.② 10.⑤ 11.시조는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내용이 다양해지고 형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양반층이 주로 향유하던 초기에는 정형성이 두드러지는 평시조가 주로 창작되었고, 내용은 충, 효, 절개, 강호한정 등의 유교적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후기로 가면서 작자층이 평민, 여성, 기녀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시조가 길어지는 장형화가 나타났으며, 내용도 사랑, 삶의 애환, 사회 비판, 해학 등의 다양하고 진솔한 감정들을 노래하였다. 12.④ 13.④ 14.③ 15.㉡ '그 나쁜 녀나를 일'이다. ㉠ '임천한흥'이다. ㉢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화하며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16.⑤ 17.④ 18.③ 19.① 20.④ 21.② 22.③ 23.① 24.② 25.① 26. ③ 27.② 28.④ 29.① 30.③ 31.④ 32.④ 33.④ 34.⑤ 35.② 36.① 37.⑤ 38.④ 39.② 40.④ 41.표현 기법은 '중의법'이며 '채미'의 뜻은 '고사리를 깨 먹음'과 '수양 대군(세조)이 주는 녹을 받음'이다. 42.③ 43.① 44. ④ 45.① 46.⑤

4-(2) 속미인곡

1.③ 2.④ 3.③ 4.④ 5.⑤ 6.② 7.③ 8.④ 9. (1)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로 임의 옷을 적실 수 있을 만큼 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 (2) 소극적인 낙월에 비해 적극적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의미이다. 10.④ 11.④ 12.② 13.③ 14.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며, 읊녀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이다. 15.갑녀의 질문에 응하면서 하소연을 통해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며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실제적 중심 역할을 하는 화자이다. 16.⑤ 17.⑤ 18.① 19.③ 20.⑤ 21.(1) ㉠과 ㉡은 죽어서라도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은 소극적 애정관을, ㉡은 적극적 애정관을 드러낸다. (2) ㉡은 임의 곁에 오랜 시간, 더 가까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22.(1) (다)의 '두견'과 '구름'은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형상화 된 점에서 ㉠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2) [A] 관직을 잃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연군지정의 마음을 드러내는 충신연주지사 [B] <보기>의 화자는 독백체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다)의 화자

는 대화체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3.⑤ 24. ④ 25.④ 26.㉡ 작가가 임금에게 버림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지은 작품이라, ㉠<속미인곡>은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만, <이소>는 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27.한자어 표현과 고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순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28.(1) (ㄱ) 모침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ㄴ)출하리 식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셔 (2) 임과 떨어져 '모침 촌 자리'에서 외롭게 지내는 화자는 죽어서 '낙월'이 되어 멀리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29.④ 30.① 31.④ 32.(1) ㉠'빈 비' ㉡사공이 없는 '빈 비'는 임에게 갈 수 없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드러내어 (2) ㉠자연물을 통해서 죽어서라도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했다. ㉡'낙월'은 멀리서 임을 비추므로 화자의 소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구준비'는 임 가까이에서 내리며 화자의 슬픈 마음을 임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범나비'는 임이 자신인 줄을 모르더라도 화자가 임을 좇겠다고 하므로 소극적 태도가 나타난다. 33.③ 34.③ 35.⑤ 36.③ 37.⑤ 38.② 39.④ 40.④ 41.② 42.③ 43.① 44.(가)는 '차라리 죽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이다. 45.④ 46.② 47.② 48.③ 49.⑤ 50.④ 51.⑤ 52. (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지만, (라)의 화자는 임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라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53.③ 54.④ 55.①

4-(2) 임경업전

1.② 2.② 3.⑤ 4.① 5.③ 6.⑤ 7.'임경업전'과 같은 군담 소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월함을 보여 주고, 실제로는 패배한 전쟁에 대해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어 치욕을 씻고자 한 것이다. 8.② 9.③ 10.④ 11.냉소적 표현과 풍자적 표현으로 인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2.⑤ 13.④ 14.⑤ 15.① 16.② 17.① 18.③ 19.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리사욕만 일삼던 지배층에 대해 분노하 20.④ 21.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22.③ 23.⑤ 24.② 25.⑤ 26.② 27.④ 28.③ 29.② 30. ①

4-(3) 산되지

1.⑤ 2.⑤ 3.④ 4.④ 5.㉠ 최원봉의 친아버지 ㉡ 최원봉 ㉢ 최 주사 부부 ㉣ 최영순 ㉤ 차혁 6.④ 7.② 8.